

# G7 계기 한미 정상회담 불발, “美측서 양해 구해”

대통령실 “최대한 빨리 한미 정상 만남 추진”  
24~25일 나토 정상회의때 성사될 가능성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에서 만날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하게 돼 내일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다자회의에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긴 한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여러 중대한 사안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석하는 확대 세션을 전후로 미국 등 G7 회원국 간의 양자 회담을 조율해 왔다.

G7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끈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은 주목도가 떨어지게 됐다. 특히 시급한 관세 협의와 관련해 실무 협상을 추동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다.

미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는 다음 달 8일로 종료로 앞둔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업종은 이미 품목별 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

도널드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키어 스타터 영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유예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내일 있었으면 관세 협상이 좀 더 추동력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실무 협상과 장관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동 불발이)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급적 (빨리)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지면 큰 보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7 회의가 무산되며 가능성이 있는 무대로는 일단 24~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꼽힌다.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으로 한국을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했고, 올해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나토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공산이 있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불발로 이 대통령의 G7 일정 중 한일 정상회담 중요도는 더욱 커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이 17일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으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위안부와 같은 과거사 문제가 언급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측은) 과거사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는데 (견해들) 일치했다”며 “한일의 여러 문제, 이견도 있지만 전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국제공항에 도착해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적인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끌고 감으로써 선순환의 분위기 속에서 이견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카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이

## 김민석 “세금 압박에 사적 채무”

“표적사정으로 경제적 고통 상상초월”  
“최근 은행대출 일으켜 사적채무 청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사적 채무 논란과 관련, “어떤 정치적 미래도 없던 세계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1000만원씩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히 고맙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표적사정으로 시작된 제 경제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정금 2억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며 “두 번째 표적사정은 추정금에 더해 숨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달 평균 140만원씩 세금이 늘어나는 혹독한 압박을 피하고자 어머니 명의의 집을 국가에 담보해 분납 시도를 해봤지만 세무 당국의 답은 냉정했다. 결국 1억2000만여원의 첫 고지 금액을 훌쩍 넘는 2억1000만여원을 최종 납부한 중가산세의 압박 앞에서 허덕이며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 채무를 통해 일가애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결국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라며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1000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다.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더불어민

주당 전직 지역위원장 강모씨 등 11명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빌렸는데 이를 두고 야당은 “자금 실체가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처음부터 이 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 천천만고 끝에 10억원의 추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은행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세비소득보다 지출이 많고 지난 5년간 교회에 낸 헌금이 2억원’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헌금도 했다”라며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 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놀랄 정도로 독립적으로 성장해온 제 아이에 대해 관련 교수가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답장까지 했는데 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들은 일을 달고 있는가. 그런 것이 언론인가”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의혹 및 논란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한 가지씩 해명하고 국민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

## 與 “민생지원금 보편지급 원칙… 추경 위해 19일 예결위원장 선출”

“민생지원금·지역화폐 등 추경 담겨… 당정 협의 거칠 것”  
“19일 본회의서 법사·예결·기재·운영 등 원구성 완료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지급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추경안 심사를 위해 임기가 끝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에 편성될 전망인 민생회복지원금과

하에서 규모·대상·방식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대로 당정 협의를 최종적으로 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당정이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기획재정부위원장·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구성이 완료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기 원내지도부의 우선 과제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꼽으며 “소비 내수 진작 효과가 증명됐고 체감이 가능한 민생지원금형태의 추경안을 꼼꼼히 마련해 빠르게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 등 임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인

준 역시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국제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기재위 등을 구성해서 아주 최단 기간 내에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에서는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보편 지급하고, 차상위계층 등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원구성 문제와 함께 상법개정 등 민생 입법 사안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9일) 본회의를 요청한 것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요청”이라며 “상법개정안은 법사위원장을 선임하고 법사위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뉴스1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

### 구례고향사랑기부제란?

구례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례군에 기부하고, 구례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 기부혜택

####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 기부방법

#### 온라인

은행이플로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기업

하나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 고향사랑e음 접속 및 가입

↓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

#### 답례품 주문하기